GAAP : 기업회계기준 브리핑

IFRS 18 적용 관련 FAQ (2)

1. 손익계산서상 재무범주에 대한 판단

대출약정 제공자 입장에서 대출약정에 대해 수취한 수수료의 손익계산서 분류

[배경]

일부 대출약정은 IFRS 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IFRS 9 문단 2.3). 이러한 대출약정은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당기손익에 반영된다(단,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는 약정은 제외 – IFRS 9 문단 4.2.1).

이 외의 대출약정은 IFRS 9 의 적용범위(손상 및 제거 요건은 제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약정이 IFRS 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기업이 대여자의 입장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이 수취하는 약정수수료는 금융상품 취득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여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약정수수료는 이연되어 유효이자율의 조정 항목으로 인식된다. 만약 기업이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약정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약정 만료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된다.

대출약정이 IFRS 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 대출약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약정수수료는 IFRS 15 의 요구사항에 따라 인식된다.

[현황 및 이슈]

IFRS 9 의 적용범위(손상 및 제거 요건 제외)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약정에 대해 수취한 수수료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결론 및 근거]

대출약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출약정 제공자의 입장에서 약정수수료의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진다.

유효이자율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영업 또는 투자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수익의 분류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이는 기업이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1) 기업이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
: 대출약정은 기업의 다른 자원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이자수익(수취수수료 포함)은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로 분류된다.

(2) 기업이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
: 대출약정이 기업의 다른 자원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투자 범주로 분류된다.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 영업

IFRS 15 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대출약정 수수료는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로 분류된다. 이는 해당 약정이 재무상태표에 금융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차입약정 보유자 입장에서 대출약정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의 손익계산서 분류

[배경]

일부 대출약정은 IFRS 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IFRS 9 문단 2.3). 이러한 대출약정은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이 외의 대출약정은 IFRS 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약정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체 자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약정수수료는 IFRS 9 에 따라 거래원가로 회계처리된다. 이 경우, 약정수수료는 이연되어(즉, 자산으로 인식되어) 인출 시 거래원가로 포함되며, 인출 이전에는 상각되지 않는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대출약정이 IFRS 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또는 전체 자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약정수수료는 유동성 서비스에 대한 지급으로 간주된다. 즉, 해당 수수료는 약정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인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 약정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자본화되며, 해당 약정기간 동안 상각된다.

[현황 및 이슈]

IFRS 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약정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결론 및 근거]

수수료를 지급하는 차입약정 보유자의 입장에서 약정수수료의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진다.

인출 시 거래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영업 또는 재무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의 분류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이는 기업이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1) 기업이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
- 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 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하여 영업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1118.60).

(2) 기업이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
: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서비스에 대한 선급비용으로 자본화하는 경우 – 영업

인출되지 않고 약정이 만료되거나, 인출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지급된 수수료는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해당 약정이 재무상태표에 금융부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는 재무 범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기업의 고객 예치금 이자비용 표시

[배경]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8 호 문단 60 및 문단 61 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자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다만,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8 호 문단 65 및 문단 66 에 따라 이자비용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현황 및 이슈]

회사는 주된 사업활동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된 사업의 일환으로 고객 예치금을 보유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이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은 아니다.

회사는 주된 사업의 일환으로 보유한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가?

[결론 및 근거]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 회사는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고,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IFRS 18 기준서상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분류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기업은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하여야 한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중간리스제공자의 리스부채 이자비용 분류

[배경]

IFRS 18 손익계산서에서는 재무 범주를 분류하면서, 어떤 수익과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할지 결정하기 위해 (1)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2) 그 외의 부채, 즉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구분한다(1118.59). 그리고 (2)에 해당하는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자수익, 이자비용, 이자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현황 및 이슈]

회사 A 는 중간리스제공자로서 제 3 자로부터 자산을 리스하고, 그 리스자산을 고객에게 전대리스한다. 회사 A 는 이러한 전대리스를 IFRS 16 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전대리스 채권에 대한 금융수익과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차이는 회사 A 의 영업성과의 주된 측정치이다.

회사 A 는 영업성과의 주된 측정치를 구성하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가?

[결론 및 근거]

아니다. 리스부채는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예이다. 따라서 이자비용은 재무 범주로 분류되어야 한다. 중간리스제공자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IFRS 18 의 예외는 없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중간리스제공자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토론 결과, 전대리스 채권에 대한 금융수익과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차이는 많은 중간리스제공자에게 주요 성과 측정치가 아니므로 예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2. 손익계산서상 영업범주에 대한 판단

손익계산서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분류

[현황 및 이슈]

회사는 제조업체이다. 당기 중, 제조 활동에 사용했던 유형자산 중 건물을 처분하고 처분이익을 계상하였다.

관련 손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어떤 범주로 표시되어야 하는가?

[결론 및 근거]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영업 범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IFRS 18 은 자산의 제거로 인한 손익을 제거 직전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것을 요구한다.
- 건물에 대한 수익과 비용(예: 감가상각비)은 처분 직전에 영업 범주에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 건물은 기업의 제조 활동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련 손익은 투자 범주에서 인식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처분 전에 판매 목적으로 분류되었더라도, 손익은 영업 범주 내에서 표시되어야 한다.

[참조사항]

처분대가 또는 처분이익은 매출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회사는 처분대가에서 건물의 장부가액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처분이익을 산출해야 한다.

건물처분이익이 손익계산서상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것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액과 통합(예: 다른 유형자산 처분 손익)하여 표시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만약 건물처분이익을 손익계산서상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해당 처분이익이 중요하다면,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팩토링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류

[배경]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8 호는 자산이 제거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하기 직전에 그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지만, 자산이 제거되지는 않고,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가 생기면 문단 65-66 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도록 한다.

[현황 및 이슈]

매출채권을 팩토링하는 경우, 관련된 손익의 범주는 어떻게 구분하여 표시하는가?

[결론 및 근거]

매출채권이 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라 제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채권이 전부 제거된다면, 기업은 해당 제거로 인한 손익을 매출채권을 제거하기 직전에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손익이 분류되었던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인식한다. 즉, 영업 범주로 인식한다.

매출채권을 전부 계속 인식한다면, 해당 매출채권의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된다. 팩토링 관련 부채는 기업이 현금을 수취하고 이후에 그 대가로 현금을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업이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채의 최초 측정 및 후속 측정에서 발생하는 손익, 부채의 발행 또는 소멸에 직접 관련된 증분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없는 경우의 손익의 범주 분류에 대한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분류한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

파생상품 등의 위험관리수단이 여러 범주로 분류되는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될 때 해당 손익의 분류

[배경]

IFRS 18 문단 B70, B72 는 기업이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인 금융상품 및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손익을, 해당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과 비용이 해당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 해당 손익에 대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을 해야 한다면, 해당 손익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한다.

[현황 및 이슈]

기업은 어떤 경우에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손익을 서로 다른 범주로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하는 대신 영업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가?

[결론 및 근거]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은, 기업이 상쇄되는 위험포지션이 있는 항목들의 집합에 대한 순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그러한 금융상품을 사용하고, 관리되는 위험이 손익계산서의 둘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별도표시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수익으로 유입될 외화현금흐름에 대한 환위험과 이자로 유출될 외화현금흐름에 대한 환위험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수익에 대한 외환차이와 이자비용에 대한 외환차이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으로 상쇄된다.

그러나 기업은 수익에 대한 외환차이를 이자비용에 대한 외환차이와 다른 범주로 분류한다. 파생상품의 손익을 각 범주에 표시하고자 한다면 기업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보다 더 큰 손익을 각 범주에 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IFRS 18 에서 금지되는 파생상품 손익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grossing-up)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IFRS 18 은 파생상품의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한다.

또한, IFRS 9 에 따라 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순포지션)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IFRS 9 문단 B6.6.15 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위험회피손익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 별도로 표시된 항목 역시 위에서 설명한 IFRS 18 의 요구사항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된다.

This docum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roces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